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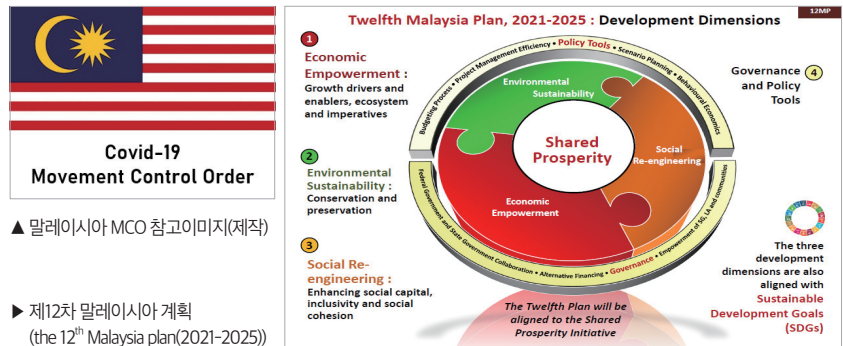


코로나19와 함께 대두된 국가 식량안보, 말레이시아의 미래 대책은?

코로나19와 함께 대두된 국가 식량안보, 말레이시아의 미래 대책은?

국가는 국민이 식량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천재지변, 기후변화 등의 특수 상황에서 그 역할은 더욱 강조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말레이시아는 3월 18일부터 국경을 봉쇄하며 그간 의존해온 식품 수입과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실감했다. MCO 사회적 격리 기간 동안 자체의 식량 및 물자 공급률은 낮아졌다. 말레이시아의 농산물 생산지 중 하나인 카멜론 하이랜드에선 MCO 기간에 유통망이 중단됨에 따라 수백 톤의 수확물을 폐기해야 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농업 근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식량안보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 농업 종사자, 비정부기구가 속해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 말레이시아 MCO 참고이미지(제작)

▶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
(the 12th Malaysia plan(2021-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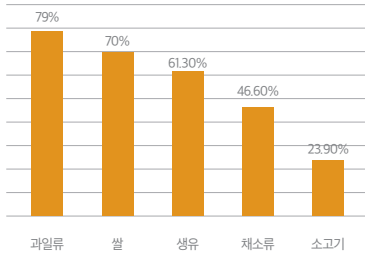
Key Point

말레이시아가 자국의 식품안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농업 역량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선진국의 농산물 유통·공급망을 벤치마킹하고 스마트농업 기술을 도입하는 등 농업 분야의 빠른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선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우리 농업인들과 농식품 기업에게 또 다른 기회이다. 말레이시아를 식품 수출시장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말레이시아 농식품 산업에 투자한다면 말레이시아 농업/농식품 산업의 근대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농업, 농식품 유통 인프라 등에 대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그 기술이 필요한 많은 국가로 진출한다면 우리의 선진화된 농업 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다.

- 말레이시아 정부의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the 12th Malaysia plan(2021-2025))'을 살펴보면 농식품 분야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경제 성장', '환경 지속성', '사회 재설계'라는 3개 대의제 하위 항목에서 식품 지속성(Food Sustainability)과 관련된 요소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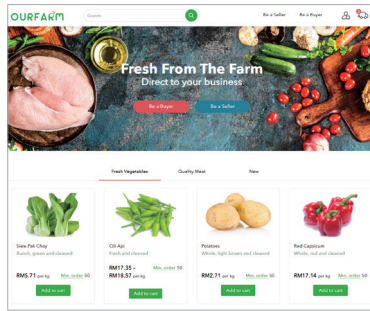
- 농업 분야 재건 : 말레이시아 GDP에서 농업의 비중이 지난 15년 동안 7~10%에 정체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농업 4.0이라는 용어를 통해 농식품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식품 수입의존 축소 : 2018년 말레이시아 식품 수입액은 약 2600억 원으로, 한국이 같은 해 410억 원 규모임에 비하면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 2020년 상반기 식품 수입액은 230억 링깃으로 전년도 수입액(214억 링깃)에서 7.5% 증가한 수치다. 말레이시아는 약 25%의 식품 수요-공급 격차를 겪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쌀(70%), 양배추(38.7%), 고추(31.9%) 등 품목에서 자급률이 낮은 편이다. 말레이시아 인구는 지난 20년간 40%가 증가했지만 쌀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 면적은 거의 늘지 않았다. 그 결과 쌀 소비량의 30%가 수입되고 있다.
- 식량 낭비 감소 : 통상적으로, 개발 도상국에선 농산물 수확량의 20%~30%가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된다. 그리고 그중 약 60%가 수확, 운송 등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말레이시아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의 농산물 공급·유통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스마트농업 지향 : 말레이시아 정부는 스마트농업을 지지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 도입에 힘쓰며 빠르게 변하는 농업의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수치나 통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농업의 스마트화와 전산화를 통해 생산 투명성을 높이고 추적시스템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농식품 지급률(2019)]



▲ 말레이시아 농식품 지급률 통계

출처 : 말레이시아 통계청



▲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Ourfarm 웹사이트

출처 : www.ourfarm.asia



▲ 말레이시아 팜오일 농장

출처 : thestar.com.my

농식품 생산량을 예상·분석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서 식량안보에 기여하게 된다. 다만 농업과 스마트 기술의 융합을 위한 ICT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관광, 외식 산업이 침체됨에 따라 농식품 B2B 거래가 감소했지만, 정부기관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실행했다.

① 잉여 농산물 4,292톤 수매 관련 부처에서는 거래량 감소로 인한 신선농산물의 과잉 공급을 예방하고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환매/수매를 시행하였다. FAM(Federal Agriculture Marketing Authority)은 4,292 톤의 농산물을 수매하고 Giant, Aeon, Big 등의 대형 유통채널에 판매하였다.

② 농식품 기금에 1억 9천만 링깃 할당 단기경제회복계획(Penjaja)과 2차 경제부양책을 통해 각 10억, 1억 9천만 링깃이 식량 생산과 수출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배정되었다. 이 기금은 또한 지원금의 형태로 농·어민과 농식품 관련 중소기업에 지급되기도 한다.

농식품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R&D 투자 및 농식품 유통 관리를 위한 전문센터 설립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미래를 위한 대비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① 농식품 유통 디지털화를 위한 지원 농업 종사자가 직접 디지털 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직접적인 B2C 거래 양상을 촉진하여 중간 거래상의 의존도를 낮춘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오프라인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농업 종사자의 경제활동이 더욱 자립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이 연장선으로 농

식품부는 Air Aisa와 협업하여 6월 15일, 농민과 도매업자를 연결하는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Ourfarm'을 오픈했다.

② 유기농 도시농업 활동 장려 지역사회 기반 도시농업은 구성원 간의 공생 감각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유기농 농식품의 지급력을 기를 수 있다. 페낭소비자협회(Consumers Association of Penang)는 특히 도시지역의 유기농업을 강조하며 정부와 이를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수직농업은 도시농업의 유망한 형태로, 향후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식량 생산·공급망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직농장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높이고 기후·환경적 특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농지 면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③ 농지 용도의 다양화 말레이시아는 1960년대 조사에서 농경지의 약 70%가 고무 재배 목적임을 밝혀내며 농지 용도 다각화 정책을 펼쳤었다. 그럼에도 현재 말레이시아 농지의 약 80%가 팜오일 생산에 할당되어있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팜오일 생산 면적은 총 580만 헥타르인 반면 과일과 채소류 재배 면적은 27만 헥타르에 불과하다.

팜유가 말레이시아 국가 수출 실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농지 사용의 편향성은 주식이 되는 쌀과 과채류의 국내 생산량을 저하시키게 된다. 더욱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쌀과 과채류 생산 농지 면적을 늘린다면 국내 지급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언론에서도 경제 성장만큼이나 자국민의 식량안보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팜유 생산 농지 일부를 다양한 작물 생산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① <http://mke12.epu.gov.my/> ② <https://refsa.org/beefing-up-food-security/> ③ <https://www.nst.com.my/opinion/columnists/2020/07/606732/smart-farming-youth-are-key-food-sustainability> ④ <https://www.nst.com.my/opinion/columnists/2020/07/607289/many-measures-being-taken-revive-agriculture-sector> ⑤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0/07/608560/cap-community-based-urban-farming-needed> ⑥ <https://www.tescopl.com/sustainability/performance/data-tables/food-waste-data/tesco-malaysia-food-waste-data/>